

김현국 탐험가, 6차 유라시아 대륙 횡단 6개월 대장정 마무리

캐스퍼로 왕복 3만2000km 횡단 증강현실 구현 할 자료 수집도



"겨울환경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러시아 현지인들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구촌 공동의 과제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마쳤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소형 SUV를 몰고 6번째 유라시아 대륙횡단에 나선 김현국(55·사진) (사)세계탐험문화연구소 대표가 육로왕복 3만2000km에 달하는 6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 대표는 "길은 평화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5월 10일 5·18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 (AH6) 기점인 부산으로 이동, 강원도 동해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과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 유럽 도로를 따라 119일 만인 지난 9월 6일 반환점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이어 귀로에 올라 11월 17일 동해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부산과 서울을 거쳐 갈

은 달 27일 광주에 도착했다.

김 대표는 1996년 세계 최초 모터 바이크로 이뤄진 시베리아 단독횡단을 시작으로 2001년, 2004년, 2017년, 2019년 등 28년 동안 모두 5차례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마쳤다. 1~5차 유라시아 대륙횡단 때는 모터 바이크를 이용했으나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의 결실인 소형SUV 캐스퍼(998cc)를 이동수단으로 삼았다. 상생의 의미를 세계 곳곳에 알리면서, 누구든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유라시아 마실가기'를 어렵지않게 경험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김 대표는 "28년 동안 6번의 대륙횡단을 통해 1만 4000km×알파(a)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는 촘촘해지고 이야기들은 넘쳐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정식 직업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인 '탐험가'로 활동하는 김현국 (사)세계탐험문화연구소 대표는 지난 2019년 세계 최대 탐험가 단체인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The Explorers Club)에 가입된 유일한 한국인 정회원이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 성료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연합회(이사장 서동균·이하 한평연)는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컬쳐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평생교육사 졸업식 등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8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평생교육 공로패 전달, 16명의 국가 평생교육사 30기 졸업식, 송년의 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장기적 꿈을 키우는 청소년학교 교장이 대안교육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평생교육 유공과 관련해 분야별로 후보자를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정활동 부문은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홍

기열·박희을 광주시의원, 김재식 광주동구오강이 선전됐으며 자랑스러운 교육인상으로는 강성심 유치원장, 황인에 사회복지원장, 배서연 뷰티션 대표, 황여울 사회복지전문 교수가 선정됐다.

산업인력공단 표창은 박정아·차현아·한새라가, 구청장표창은 이정화·박혜원·임수연이 받았다.

그밖에 김선옥 국립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초청 강연, 임지화의 해금연주, 시니어모델링 공연 등이 펼쳐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 진행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일까지 14일간 영광 구수대신어촌계에서 '도시민, 전남 어민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귀어 희망 도시민 10명이 참가했으며, 전남으로의 귀어를 위해 빈집, 일자리 등을 알아보고 어민들과 밀착 접촉해 거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전남대 박정훈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전남대학교 박정훈(사진)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 세계 토양의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토양복원 기술개발, 오염 토양 환경 조사와 정화 사업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토양환경 분야에서 10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토양 환경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 교수는 현재 전남대 토양기술포구소장, 토양오염 조사기관 협의회장, 4단계 BK21사업 팀장 등을 겸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적십자광주전남지사, 독거노인에 생필품주머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20여명은 독거노인을 위한 16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제작했다. 선물 주머니는 김, 멸치, 미역, 핸드크림 등 12가지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히트 트랙 선공개(재)	00 혼례대첩(재)	15 헬로킴지 체육교실(재) 30 모두의 찰리지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정병훈 열연했습니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3 55 2시 뉴스 외전	45 도시락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2023 프라이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10 전자적 참견 시점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혼례대첩	0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3 스페셜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55 개그 콘서트 스페셜	45 오은영 리포트 알뜰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9층 시사극(재)		55 스포츠 매거진	50 도시락 스페셜
12	15 KBS결작 다큐멘터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스튜디오 K	35 오늘도 사랑스럽게(재)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대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그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만국
07: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오구오구 내 새끼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20:00 인간이 되자!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알프스의 심장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사는 법>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8:50 다이노스터	17:00 페퍼 피그	<내 인생, 빨간 맛 1부 불불락 잡던 날>
09:2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1:50 EBS 다큐프라임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흘족속의 빅풋패밀리 쇼츠	22:50 인간과 바다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스터리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1일(음 10월 29일 癸卯)

<p>子</p> <p>36년생 가다가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 48년생 원인 불명의 돌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잘 살펴보지 않으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72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84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7, 59</p>	<p>午</p> <p>42년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갈 것이다. 54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기회만 제대로 포착한다면 아주 특별한 행운이 따르리라. 78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90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02년생 정제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3, 99</p>
<p>丑</p> <p>37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49년생 스티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61년생 희망해 왔던 바대로 적적 맞아떨어질 것이다. 73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 85년생 겉은 매끄럽지만 내부에는 문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97년생 어설픈게 행하려거든 아니하면 못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69</p>	<p>未</p> <p>43년생 자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5년생 운운만 잘한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67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79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익의 폭이 굉장하다. 91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03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45, 56</p>
<p>寅</p> <p>38년생 순조롭게 진행되어 알찬 이익을 볼 수 있다. 50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특이점이 나타나리라. 62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해질 수밖에 없다. 74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하면 실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86년생 가다가 잡히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98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단성 있게 전환하라. 행운의 숫자 : 09, 77</p>	<p>申</p> <p>44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해야만 할 시점에 놓여 있다. 56년생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되는 국망이 나온다. 68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80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타격을 입으리라. 92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04년생 의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9, 62</p>
<p>卯</p> <p>39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51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63년생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상대를 배려한다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87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되어질 수도 있다. 99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1, 86</p>	<p>酉</p> <p>45년생 검토모순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세밀하게 보아야 할 일이다. 57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9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백년 나을 것이다. 81년생 포괄적인 개편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93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느리다면 반전되리라. 05년생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3, 68</p>
<p>辰</p> <p>40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명심하라. 64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행상이 보일리라. 76년생 계속되는 형세 아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88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00년생 요리무중이니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65</p>	<p>戌</p> <p>34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46년생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도량이 달라진다. 58년생 사소하다고 여겨 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70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82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94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10, 66</p>
<p>巳</p> <p>41년생 레도남마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53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65년생 참신한 발상 속에서 새로운 시야가 트일 것이다. 77년생 불가항력적인 고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8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자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01년생 생 각 단단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2, 71</p>	<p>亥</p> <p>35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것이니라. 47년생 이 미 던져진 주사위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59년생 서행하면 득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이로다. 71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83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95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34, 91</p>